[UCI]I804:24011-200000231871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형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Life satiafaction and participation of physically Disablbd people

2006년 2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지 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57871 2006-10-18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 도 교 수 송 채 훈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지 명

이지명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고동진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오 날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재훈 (인)

2005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 문제 ····· 3

D.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A. 장애인의 개념 ····· 5

1. 일반적 정의 ····· 5

B. 지체장애인의 개념 ····· 8

1. 정의 ····· 8

2. 지체장애인의 발생원인과 판정 기준 ····· 9

3. 개인적 특성과 생활체육의 관계 ····· 12

C. 장애인의 생활체육 ····· 14

1. 장애인의 생활체육의 개념 ····· 14

2.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의 특징 및 역할 ····· 15

D.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 17

E. 생활만족의 개념과 이론 ····· 19
1. 행복과 생활만족의 개념적 관계 ····· 20
2. 생활만족의 측정 ····· 21
3.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
4. 생활만족의 이론 유형 ····· 25

Ⅲ. 연구의 방법 ····· 28
A. 연구의 대상 ····· 28
B. 조사도구 ····· 29
1. 설문지의 구성 ····· 29
2. 설문지의 타당도검증 및 신뢰도분석 ····· 30
3. 신뢰도분석 ····· 30
C. 조사절차 ····· 31
D. 자료처리 방법 ····· 31

Ⅳ. 연구결과 ····· 32
A. 연구대상자의 생활체육참여형태 ····· 32
B. 인구사회학적요인별 생활체육 참여만족 ····· 34
1.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4
2.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4
3. 학력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5
4. 월수입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7
5.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8

C.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9
1.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39
2.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40
3.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41
4.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 42
D.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상관관계분석 ····· 43
E.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 44
1.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 44
2. 참여정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 44
3.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 45
4.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 46

Ⅴ. 논의 ····· 47

Ⅵ. 결론 ····· 49

참고문헌 ····· 51
부록 ····· 54

빈 면

ABSTRACT

Life satiafaction and participation of physically Disablbd people

Lee, Ji-Myoung
Advisor : Prof. Song, Che-Hoo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influences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on life satisfaction and aims to develop affirmative and positive thinking and exte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it. It takes purposive sampling with disabled persons between 20 and 60 years old who used sports facilities for all in G metropolitan city as of 2005, compares their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and obtain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According to participation types of sports for all by subjects, most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period of their participation in it was for more than one year, frequency of participation a week was over 4 times, time required for participating in it was 2 hours, motive of participation in it was for health management and major participating item was swimming.

2. In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by demographical factors, sex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chievement factors between groups, women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it, and the

older subjects are,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ar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factor according to education, monthly inco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factor and subjects with higher income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addition, type of disability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malformation disability.

3. Health facto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iod, frequency, time and motive of participation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according to types of participation. Period of particip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group participating in it over 3 months and below 6 months with health and social factors and in group participating in it over 6 months and below 1 year with emotional and achievement factors. Frequency of particip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participants for 2 hours in health factor, in those for 4 hours in emotional, social and achievement factors and motive of particip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for health management.

4. Correlat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sports for all by type of participa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motive of participation and health factor in degree of participation, with period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motive of participation, with health and achievement factor in emotional factor and with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health factors.

5.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according to type of participation, health factor had an influence on degree and motive of participation, achievement factor affected

time of participation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in all emotional, health, social and achievement factors.

In conclusion, disabled persons participated in sports for all for more than 1 year and they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health. In additi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had an influence on satisfaction with health and achievement factors and consequently, needs of sports space to take part in program for improving health and sports for all in disabled persons are urgently required and professional coaches' instruction and specialized sports program are also needed.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는 만인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존, 행복, 번영 등을 지향하는 복지증진의 과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우며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편견이나 차별 등으로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장애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교육, 예방, 치료 등의 문제를 일반인 나아가서는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과 부정적 태도, 장애인 자신들의 체육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의식과 배려가 부진한 상태였다(한민규, 1996).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그 자체가 삶일 수 있다. 장애인에 있어 신체활동의 필요성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절실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활동의 경험이 적고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의 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운동 부족의 현상으로 체력의 저하와 내장기관의 작용도 원활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잃고 긴장이나 불안 등 정서적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장애인들은 운동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들이 운동을 즐기기에는 지도자, 시설, 운동 프로그램 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은 일상생활 중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정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게 된다(이홍구, 1998).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런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생을 영위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대부분 삶의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외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장애인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건강과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및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 의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 및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생활체육에서의 활력을 되찾고 신체적인 장애 정도를 극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장애인의 생활에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의수, 1995; 홍양자, 1996; 최승권, 1999).

또한 개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성, 연령, 수입, 직업, 학력, 결혼, 가정 및 여가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이종길, 1992). 이런 생활만족은 인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Diener, 1984)로서 능동적이거나 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이성철, 1996; 이종길, 1992; Lemon, Bengtson, Perterson, 1972; Rapoport & Rapoport, 1975; Kelly, 1983). 특히 이런 생활만족은 생활체육 참가에 적극적일 때만이 가능하다(이종길, 1992).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런 생활체육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생활체육 참가와 생활만족간에는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이성철, 1996; 이종길, 1992; Heppe & Ray; 1983; Peppers, 1976;

Riddick & Daniel, 1984). 제한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최승권, 1999)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및 시설현황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3)가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생활체육참가와 관련된 연구는 기초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지체장애인들도 생활체육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참가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더욱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참여를 권장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참가 형태에 따른 생활만족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를 길러 생활체육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C.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체육참여형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월평균 수입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형태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만족(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생활체육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만족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5. 생활체육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만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장애인들에게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A. 장애인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또한 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장애인의 정의는 UN과 WHO에서 정의한 것으로 UN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생리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WHO에서는 장애를 세가지 차원 즉, 심신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했다. 세 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손상은 장애와 사회적 분리에 영향을 주고, 장애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며,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나운한·남상만, 1997).

UN과 WHO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법령상 장애인의 정의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 법령상 장애인의 정의는 첫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둘째,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상의 정의에서 '제약'만을 강조한 점은 사회 복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 선천적인 원인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낮아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데 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자로 밝히고 있다. 즉, 단순하게 제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지적 혜택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제약이 있어, 복지적 혜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정의에서는 손상의 결과로 나타난 신체적 조건이 중시되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 조건의 개념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첫째, 일상생활의 행동에 중대한 곤란이나 제한이 있는 사람. 둘째, 장애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 셋째, 스스로 장애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 주위사람으로부터 장애인이라 하여 차별 받게 되는 일 ' 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송영욱, 199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장애인과 신체적 상태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신체적 상태에 의해 다시 분류된다. 분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신체적 상태에 따라 그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장애의 원인과 장애부위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표 1>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의 종류	기 준
1. 지체장애인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운동장애가 있는사람
2. 뇌변병 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등 뇌의 기질적 병원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사람
3. 시각장애인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유무 및 그 정도에 의해 나눈다.
4. 청각장애인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을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1항

위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과 장애부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이런 분류와 상관없이 장애인들은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혜택, 대중교통의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부분들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쉽게 누릴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B. 지체장애인의 개념

1. 정의

지체장애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정의는 1920년 프로이센 지체장애보호법 제9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의학적 측면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일반작업장에서는 생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상의 장애만을 중점으로 지체장애를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사람의 몸 중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될 때 이것은 대체로 운동장애, 감각장애의 상태로 그 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지체장애라 한다. 그러나 골절이나 근육의 파열상 등으로 지체의 운동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급성 또는 아급성 질환으로 어느 기간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는 지체장애라고 보지 않고, 단지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만 지체장애라고 정의한다.

지체장애인에 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단순한 기능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능상의 장애는 필연적으로 생활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두 가지 개념을 혼합해서 정의했다. 즉, 선천적 후천적으로 질병, 사고, 원인불명으로 임해 사지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정의한다.

지체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은 신체적인 특성이다. 지체장애인은 신체의 부분 또는 전체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동기능과 체력이 저하되고, 신체의 부분

또는 전체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동기능과 체력이 저하되고,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을 지체장애인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지만 주로 주위의 반응에 의해 알게 된다. 가족, 친구, 주변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의 신체상(Body image)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때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상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된다.

신체상은 자아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부정적인 신체상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즉,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지체장애인의 신체상은 지체장애인에게 무력감, 열등감, 소외감 등을 일으키고, 이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바탕이 된다. 결국, 지체장애인은 부정적 자아 개념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며,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지체장애인의 발생원인과 판정 기준

지체장애인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므로 발생원인 별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① 소아마비: 척수 내에 있는 운동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어 팔, 다리, 몸통 등에 마비의 증세가 나타나는 장애이다. 마비의 정도는 각 개인에 따라 그리고 감염된 운동세포의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마비의 증세는 운동세포가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며,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영구적이다. 마비 유형은 여러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하며, 어느 연령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김선중, 1994).

② 뇌성마비: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는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말하는데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

징이다. 뇌성마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표준적 정의에 의하면, 뇌성마비란 뇌의 운동조절 중추의 병원에 기인하는 마비, 허약, 불협응, 기타 운동기능의 일탈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제한적 정의는 출생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변의 결과로 운동영역의 통제를 방해하는 상태이다. 셋째, 실제적인 정의는 신경운동장애, 심리적 장애, 경련, 행동장애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뇌손상 증후군의 하나로 보았다.(이창진, 1997).

③ 척수손상: 척수장애는 뇌와 신체 각 부위의 근육간에 신경전달 역할을 하는 원통형의 신경조직인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어 발생한다. 즉, 척수 장애는 척수의 질환이나 손상 그리고 척수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이다. 일반적으로 척수 송사부위가 높을수록 신체마비의 범위가 크다. 경추 송상일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나타나며, 흉추나 요추의 손상일 경우에는 하지마비가 나타난다.

④ 절 단: 절단이란 사지 또는 사지의 특정 일부가 결손 된 경우를 말한다. 절단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생긴다. 선천적 절단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태아의 부적절한 발달에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 절단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후천적 절단은 질병, 사지의 종양 등으로 인한 원인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발물사고, 전기 사고 등의 의상으로 인한 절단이 있다.

⑤ 뇌 졸 중: 뇌졸증은 뇌혈관장애로 갑자기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온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신불수 또는 편마비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중풍으로 알려져 있다. 편마비는 사고에 의해 뇌를 다치거나 뇌에 염증 또는 암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다.

⑥ 관 절 염: 관절염은 대게 관절연골의 파괴와 관절 주의 조직의 유착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관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성관절염 등이 있다.

⑦ 근이영야증: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고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되는 근육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유전에 의해 발생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원인에 의해 증세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체장애의 판정기준은 공통적이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를 지체장애로 제시하고 있다.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② 한 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 골간 관절 이상 상실한 자

③ 한 다리를 리스후량관절 이상 상실한 자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⑤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송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이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의 항목인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에서 언급했던 지체장애의 발생원인과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지체장애를 다음 단계를 거쳐서 조사하였다.

첫째, 해당 가구 내에서 지체장애인의 유무의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 원 중 팔, 다리, 몸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 이상 등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 질문으로 현재 장애 상태의 모든 신체적 손상을 지체장애인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장애인 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장애형태, 부위, 정도 등을 조사하고 능력 장애상태를 확인하였다.

마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앞으로 자료가 불가능하고 만성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절운동장애의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왜소증도 포함시켰다.

뇌성마비와 뇌졸중이 지체장애의 발생 원인일 경우에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정신지체가 중복적인 증상으로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가 중복된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내상에서 제외시켰다.

3. 개인적 특성과 생활체육의 관계

생활체육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은 생활체육 참여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임번장, 1986; 박영관, 1992; 이제홍, 1993).

Mcphherson(1981)은 개인적 특성을 성, 연령, 사회계층, 인종, 종교, 거주지역, 거주지형태, 출생서열, 수입, 직업, 교육수준 등 귀속적, 성취적 특성으로 보았다. 개인적 특성을 첫째, 인구 규모, 인구 밀도, 인구 분포 및 인구의 사회학적 성향 등과 같은 생태학적 구성요소 둘째,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배분과 같은 사회적 형식을 포함하는 경제적 구성요소 셋째, 권력구조와 같은 정치적 구성요소 넷째, 제도적 가치와 같은 가치적 구성요소 등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성, 연령, 사회계층이나 직업, 교육수준, 수입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에 있어서 성차와 관련하여 성역할 행동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학습되며, 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제가 포함된다.

첫째, 아동은 각기의 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부모와 여타의 중요타자로부터 강화를 받으며, 둘째, 이와 같은 강화에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예컨대 남자아이가 축구공을 갖고 놀면, 그의 부모는 기뻐하면 미소를 짓고, 관심을 보임으로써 아동의 선택을 강화한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게 되면, 부모는 꾸짖음으로써 아동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인형을 빼앗거나 혹은 보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아동을 결국 성적으로 정형화된 장남감을 선택하도록 학습된다.

따라서 남자아이는 스포츠가 내포하고 있는 강한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아동기부터 사회화되는 반면, 여자아이는 이와 반대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사회화된다. 즉 남성과 여성은 일정한 행동양식을 선별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각 성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된다(Leonard, 1988).

이와 같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스포츠는 남성에게 있어서 전통적 남성 역할 정의와 관련된 특성과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스포츠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강화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통념적인 남성다움을 표현하여 주는 수단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연령은 지위의 점유 및 은퇴,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사회적 참가 자격 획득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연령과 스포츠 참여의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의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 및 지속 수준은 연령과 반비례한다고 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생활체육 참여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교육 수준은 개인적 노동이나 여가활동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적 배경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나 여가유형을 결정지을 수 있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여가활동 관련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을 분석하여 교육수준은 이러한 여가행동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수입은 생활체육 활동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가참여에 대한 인구를 통하여 가계소득과 같은 수입은 하나의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과장되거나 혹은 축소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입은 여가 참여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여가 선택에 관한 설명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기 보다는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가나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 관련 연구의 결과들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참여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활동비용을 결정짓는 소득이나 수입은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C. 장애인의 생활체육

1. 장애인의 생활체육의 개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유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을 여가활동으로 생활화함으로써 현대사회가 구조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인간됨을 회복케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4).

생활체육을 통하여 사회활동에서 성취감이나 안전감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반 체육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참가시킴으로써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여가 시간의 활용, 건강의 우지 및 증진과 인간관계의 형성을 의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제한된 능력발휘 그리고 흥미에 알맞게 짜여진 여러 활동을 포함한 게임, 스포츠, 리듬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다.(홍양자, 1996).

장애인 체육의 개념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개념을 추정하면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의 복합적 의미로 개념을 지울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신체 기능이나 구조의 개선을 강조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근

력을 개발하기 위해 정규적인 체육활동을 각 개인에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번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장애인 체육의 개념과 생활체육의 개념의 개인적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번영한 생리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노형규, 1998).

2.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의 특징 및 역할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장애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건이다. 또한 재활수단으로써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및 신체기능 퇴화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김선중, 1994)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장애인에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홍양자, 1996).

첫째, 비규칙적이다. 지시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긴장감에 해방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전문적이다. 장애인의 생활 체육은 참여자들의 우수한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활동의 목적이 신체활동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신체활동의 능력만이 요구할 뿐 신체적 능력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즉 움직임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셋째. 비조직적이다. 편안한 시간에 자유로이 하고 싶은 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동 시 건물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고 아무 장소에서나 혼자서 혹은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즐긴다.

이 같은 특징을 반영한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는 데에서 여가 활동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장애인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됨은 장애인의 삶의 가치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을 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치료의 수단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손상으로 인하여 절단되거나 신체 일부가 마비된 장애인은 마음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져 협응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심리적 건강을 경험하고 정신적 불안과 억압에 고통을 받음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박영관, 1992).

장애인 생활체육은 대한 그들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도와준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통합 혹은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게끔 도화주는 것이다. 체육활동은 장애인들 사이와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의 이해를 돈독케 해주며 체육활동을 매체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박영관. 1992).

마지막으로 김선중(1994)과 홍양자(1996)가 제시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은 장애인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동은 장애인들의 미래사회에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게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장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립감을 갖게 되므로 그에 대한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에 생활체육이 크게 기여한다.

둘째, 생활체육은 장애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와 함께 오는 건강과 체력의 감퇴를 예방하는 치료 활동적 역할을 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사회생활에 임하게 된다. 즉. 생활체육 활동은 신체활동의 기호를 제공하여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보하

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협동심을 고취시켜 정산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체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생활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며 삶의 가치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D.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 비장애인에 비하여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학계 및 생활체육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가 몇몇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명재와 홍양자(1994)는 재가장애생활체육을 위한 요구사항 등에 근거하여 면밀히 조사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는 장애 생활체육 통한 복지증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지체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김선중(1994)의 연구가 있다. 지체장애인의 스포츠형에 따른 스포츠 태도는 지체장애인 중 척수 장애인이 비교적 긍정적인 스포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스포츠 태도는 20

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보다 긍정적 스포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체장애인의 장애원인에 따른 스포츠 태도는 스포츠의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에서 스포츠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고원인에 의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 보다 스포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 관련 지체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노력이나 비장애인의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점차 생활체육이 비장애인의 생활 중 일부부분이 이 되면서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나마,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비장애인의 관심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특히 1988년 장애인 올림픽 이후 1989년에 한국 장애인 복지 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장애인 복지 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및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 욕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서울을 비롯한6개 시·도에서는 각 장애인 생활체육 동우회와 연합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약 760명 정도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좌식배구, 휠체어 농구, 수영, 배드민턴, 양궁, 탁구, 볼링, 론볼링, 휠체어테니스, 보치아, 에어로빅 등이다. 또한 연중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약 5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교수 및 전문가들이 생활체육의 이론 및 실기를 지도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용평스키장에서 약1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스키교실을 개최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단계별로 약 30명 정도의 장애인체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습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나 앞으로 관련 학자들의 부단한 연구와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나은 장애인 생활체육 복지 환경을 물론 장애인 복지 상황도 많이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E. 생활만족의 개념과 이론

생활만족의 개념은 여러 학자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받아 들려지는 것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달성에 대한 한 개인이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종길(1992)은 행복의 개념을 통하여 내적, 주관적 저의의 범주로서 생활만족을 해적하고 있다.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이 일반된 것은 Neugarten(1979)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지수를 개발한 이후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기까지 생활만족도가 의미하는 바는 주로 적응(adjustmunt),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성공적인 성숙(successful aging), 사기복지(morale), 또한 행복감(happiness)이라는 관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또는 혼용되어 왔다. 이러한 혼동된 의미에서는 사기, 행복감이 생활만족도라는 개념과는 각기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사기는 용기, 훈련, 확신, 열의 및 곤란을 인내하는 의지의 정신상태이며, 행복감은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봄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주

안점으로 삼는데 반해 생활만족도는 사기, 행복도와 같은 개념 군에 속하나 좀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먼저 행복과 생활만족의 개념적 관계를 살펴보고 생활만족에 관련된 측정의 문제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변수 그리고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관련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행복과 생활만족의 개념적 관계

Diener(1984)는 행복의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외적·규범적 정의 범주로서 미덕이나 신성함과 같은 외적인 기분에 의한 행복의 정의이다. 행복은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관찰자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관점에서는 명예나 부가 행복은 행위적이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행복은 현대적인 감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체계에 의해 판단되는 바람직한 상태일 뿐이다.

둘째는 내적·감정적 정의의 범주로서 이 정의는 감정 또는 감명(affect)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정의는 유쾌한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며 현재의 감정적 상태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감정에 노출되거나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내적·주관적 정의의 범주로서 이 정의는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의 기준에 근거한 생활만족의 개념이다. 행복은 개인의 욕구와 목적의 조화로운 만족이며,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며, 전형적으로 개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이 만족정도로써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복의 특징에 비

추어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거론되어온 행복이라는 용어가 필연적으로 개념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세 번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생활만족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앞으로 관련 연구와 측정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가장 과학적으로 유용한 행복의 개념은 행복의 관련변수에 초점을 둔 이론적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2. 생활만족의 측정

행복은 긍정·부정적 감정의 빈도나 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나 생활만족은 감정적 상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아니다(Diener, 1984:550), 생활만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간의 차이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간의 차이를 입증하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생활만족의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으나, 이중 다수는 생활만족에 대한 판단 이외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Diener, Emmonsons, 개발한 생활만적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LLS)는 각자의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이 단일요인에 대해 요인적 재치와 문항간 내적 일치도 그리고 측정 재측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생활만족의 측정에 있어 몇몇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Diener (1984)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먼저 측정 당시의 일시적인 기분이 주관적인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몇몇 연구에서는 현재의 감정을 측정하거나 ·요즈음·또는 ·지난 몇 주·와 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배제한 척도의 사용을 시도한 바 있다.

생활만족의 척도는 행복에 관련된 측정에 있어 가장 일관성과 안정성이 높은 측정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 시점의 감정 상태를 함께 측정하였을 경우 그 측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낮아 질 수 있다.(Diener, 1984).

생활만족의 측정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측정의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생활만족의 측정은 대부분 자기보고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식적인 왜곡과 가상적인 응답의 문제가 제기된다(Diener, 1984), 실제로 특정 수준의 불행에 처한 사람이 몇몇 이유로 인해 자신을 행복한 것처럼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3.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철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행복이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가에서는 이러한 관련 요인들 가운데 연구통계학적 변수, 성격변수, 생물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을 중심으로 생활만족과의 관련성을 Diener(1984)의 연구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수입,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결혼 및 가정생활 등의 변수가 있다. 수입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수입은 단지 극도의 빈곤상태에서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영향력은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된다. 둘째, 수입과 공변량 관계에 있는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들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생활만족에 대한 수입의 영향을 직접적이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비교(Social comparison)에 의존한다.

연령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비교적 일찍부터 Medley(1980)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결과와는 반대로 연령과 생활만족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 즉 나이가 많을수록 보다 행복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 자체보다는 생활주기(life cycle)의 형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생활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성이 보다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남성과 여성간에는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연령과의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고한 연구결과에서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보다 더 행복하고 나이가 많은 여성은 나이가 많은 남성에 비해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차상이 45세를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성차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는 결코 크지 않다.

교육수준과 생활만족의 관계에서는 1957년 1978년 사이의 미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수준의 향상은 또한 개인의 기대수준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생활 형태를 수정하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결혼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수의 대규모 연구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 수입, 직업 등의 변수를 통제했을 때 결혼은 생활만족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결국 결혼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항상 높지 않으므로 결혼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들을 탐색하는 연구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격 변수 생활만족과 성격의 관계는 개인의 기질이 다른 외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생활만족의 요인이라는 전통적이고 보편화된 신념에서 그 관련성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견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전체가 생활만족의 전체 변량 가운데 10% 정도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였고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만족에 대해 성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몇몇 성격변수와 생활만족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성격변수 가운데 자기존중의 변수가 생활만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중의 하나이다. 자아에 대한 만족정도가 다른 변수보다 생활만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생활만족에 관련된 또 다른 성격변수는 어떤 결과를 외적 요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귀인 시키는 통제소제(locus of control)의 내재성이다. 이 변수는 대부분의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생활만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또한 자신의 평가한 효능감, 개인적 자원, 우수성 등의 변수들이 생활만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다.

외향적 성격이나 사회성이 생활만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Smith(1979)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외향적 성격 중 사회성과 같은 요소는 생활만족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강제성과 같은 요소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외향성은 긍정적 감정과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신경과민은 부정적 감정과 관계가 있다.

생물학적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변수는 주관적인 건강정도(perceived health status)이다.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정도가 생활만족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변수 생활만족과 관련된 행동적 변수에서는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과 생활사건 (life events) 그리고 활동(activity)등의 변수들이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사회적 접촉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친구에 대한 만족이나 고

독과 같은 주관적 척도와 생활만족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련된 객관적인 척도와 생활만족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종단적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동시적인 생활만족의 변화가 수반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사건과 생활만족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은 개인 생활에 있어 상호 독립적이라는 점과 좋은 사건은 긍정적 감정과 나쁜 사건은 부정적 감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활사건을 통제하고 행동을 취하는 개인 능력이 지닌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이 통제를 상실하게 될 정도로 즐거운 일이라면 오히려 생활만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생활 사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사건이 중요한 변수이며 그 외의 측면은 주요 매개변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큰 규모의 사건이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에서 축적되는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개념적인 틀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4. 생활만족의 이론 유형

생활만족에 관련된 주요 이론유형에는 활동이론, 목적이론, 상향 대 하향이론, 판단이론 등이 있다. 이들 이론들의 접근방법과 관련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는 행복이 목적 달성이나 욕구충족보다는 인간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등산의 경우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산을 올라가는 활동 그 자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자기인식이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행복 추구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파멸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개인이 의미있는 활동 자체에 몰두한다면 행복은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로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목적이론(Telic Theory)은 행복이 특정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행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욕구와 목적에 관한 이론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적인 정형화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목적이론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는 행복이 이전에 충족된 욕구에서 오는가·아니면 당시에 충족된 욕구에서 오는가 혹은 욕구를 충족해 가는 과정에서 오는가·라는 것이다.

목적이나 욕망은 기초적인 욕구에 비해 보다 의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행복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목적달성이 단시간의 감정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생활만족의 향상에 기여하는 가라는 것이다.

상향이론과 하향이론(Bottom-Up Versus Top-Down Theory)의 차이에 관련된 문제는 현대 심리학과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유쾌함과 고통의 경험을 합한 정신적 계산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단지 행복한 순간들의 축적이라 할수 있다. 이에 반해 하향이론(Top-Down Theory)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이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판단이론에서는 생활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특정 기준과 실

제 상태간의 비교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신의 실제 상태가 기준 이상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생활만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교가 보다 의식적이다.

그러나 생활 감정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형태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판단이론에서는 어떤 경험이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는 가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는 가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A.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05년 현재 G광역시의 장애인으로써 생활체육시설(축구, 수영, 보치아, 휠체어농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등)을 이용하고 있는 만 20세~60세 이하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자	63	63.6
	여 자	36	36.4
연 령	29세 이하	7	7.1
	30세 이상 - 39세 이하	8	8.1
	40세 이상 - 49세 이하	30	30.3
	50세 이상 - 59세 이하	31	31.3
	60이상	23	23.2
학력	무학	5	5.1
	초등졸	17	17.2
	중등졸	14	14.1
	고등졸	36	36.4
	대학졸	26	26.3
	대학원졸	1	1.0
월수입	100만원미만	68	68.7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	15.2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9	9.1
	200만원이상	7	7.1
장애유형	뇌성마비	17	17.2
	척수장애	22	22.2
	절단장애	11	11.1
	소아마비	5	5.1
	기형	2	2.0
	기타장애	42	42.4

B.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사회학적요인 5개 문항, 생활체육 참가형태 5개 문항,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만족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으로 구분하여 20개 문항, 총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가 개발하고, 오광진(2000)이 사용한 유능감 지각 관련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생활체육참가형태 중 빈도는 1주당 몇 회 하는지를 기입하게 하였으며, 기간은 월로 기입하게 하였고, 시간은 시간단위, 그리고 참여동기와 참여종목의 문항을 기입하게 하였다<표 2>.

본 연구의 생활만족 설문지는 Diener, Emmonson,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한 5점 척도로 구성된 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이종길(1992), 우정석(2004)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생활만족도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성별, 학력, 장애유형, 월평균수입	5
생활체육참가형태	참여기간, 소요시간, 참여횟수, 참여동기, 참여종목	5
생활체육참여만족도	정서, 건강, 사회, 성취	20

2. 설문지의 타당도검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은 베리맥스의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4>, 신뢰도는 Cronbach's α 방법을 검증하였다<표 5>.

<표 4> 생활체육참여 만족도의 요인분석

문항	정 서	건 강	사 회	성 취
Q1	.643			
Q5	.666			
Q9	.531			
Q12	.574			
Q16	.729			
Q2		.704		
Q6		.653		
Q13		.798		
Q19		.895		
Q3			.513	
Q7			.652	
Q10			.578	
Q15			.774	
Q17			.559	
Q20			.587	
Q4				.657
Q8				.685
Q11				.784
Q14				.672
Q18				.585

3. 신뢰도분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지의 생활체육 참여만족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분석은 만족도요인의 하위변인인 정서 .8482, 건강 .8093, 사회 .7890, 성취 .8113으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5> 생활체육 참여만족요인의 신뢰도 계수

요 인	하위 변인	질문지의 Cronbach's α
생활체육참여만족	정 서	.8482
	건 강	.8093
	사 회	.7890
	성 취	.8113

C. 조사절차

연구자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생활체육 참여형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설문지를 받은 후 본인과 훈련된 설문조사원을 통해 이들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자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후 검사지의 첫 장의 지시문과 연구자가 동봉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관한 내용을 1-2분 정도 읽은 후 생활체육형태에 따른 참여 후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 자기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D. 자료처리 방법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사례별로 입력한 후 통계프로그램인 SPSS1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생활체육 참여가 생활만족감(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체육에 따른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수준으로 하였다.

Ⅳ. 연 구 결 과

A. 연구대상자의 생활체육참여형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생활체육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참여기간은 1년이상 참여자가 62명(6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이상-6개월미만 14명(14.1%), 6개월이상-1년미만 12명(12.1%), 3개월미만 11명(11.1%)순으로 나타났다.

주당참여횟수는 4회이상 참여자가 48명(48.4%)로 나타났으며, 3회이상 28명(28.3%), 2회이상 17명(17.2%), 1회이상 6명(6.1%)순으로 나타났으며, 1회참여시 소요시간은 2시간 53명(53.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1시간(26.3%), 3시간과 4시간이 각각 10명(10.1%)로 나타났다.

참여동기를 묻는 질문에 건강관리란 응답이 75명(7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 및 대인관계 10명(10.1%), 아름다운 신체를 위해 6명(6.1%), 스트레스해소 5명(5.0%), 여가선용 3명(3.0%)순으로 나타났고, 참여종목은 수영 41명(41.4%)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으며, 볼링 26명(26.3%), 탁구 12명(12.0), 축구 6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생활체육참여형태

변인	구분	빈도수(n)	백분율(%)
참여기간	3개월 미만	11	11.1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14	14.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2	12.1
	1년 이상	62	62.7
주당참여횟수	1 회	6	6.1
	2 회	17	17.2
	3 회	28	28.3
	4회 이상	48	48.4
1회 참여시 소요시간	1 시간	26	26.3
	2 시간	53	53.5
	3 시간	10	10.1
	4 시간	10	10.1
참여동기	건강관리	75	75.8
	아름다운 신체	6	6.1
	사교 및 대인관계	10	10.1
	여가선용	3	3.0
	스트레스	5	5.0
참여종목	축구	6	6.6
	수영	41	41.4
	보치아	3	3.0
	휠체어농구	3	3.0
	탁구	12	12.0
	배드민턴	1	1.0
	볼링	26	26.3
	기타	7	7.07

B. 인구사회학적요인별 생활체육 참여만족

1.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 만족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중 성취요인에서는 여자 3.54±.47로 남자 3.30±.59보다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요인은 여자 3.65±.43, 남자 3.56±.49로 여자응답자가 더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은 여자 3.40±.57, 남자 3.27±.63으로 나타났고, 사회요인에서는 여자 3.60±.41, 남자 3.56±.50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생활체육참여에 만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7>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성별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남자	3.56	.49	.813	.369	3.27	.63	1.125	.291	3.56	.50	.168	.683	3.30	.59	4.339	.040
여자	3.65	.43			3.40	.57			3.60	.41			3.54	.47		

* P<.05

2.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에서는 정서요인 40-49세 3.70±.53으로 가장 높은 참여만족을 나타냈으며, 50-59세 3.59±.47, 60이상 3.54±.41, 30-39세 3.50±.35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건강요인은 30-39세 3.5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59세 3.44±.72, 40-49세 3.27±.53, 60세이상 3.25±.63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만족에서는 50-59세 3.6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이상 3.60±.40, 40-49세 3.55±.39, 29세이하 3.52±.46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요인에서는 40-49세 3.46±.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59세 3.44±.56, 30-39세 3.33±.68, 60세이상과 29세이하는 각각 3.28±.54와 3.28±.61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연령별 참여만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단위 : 세

연령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29이하	3.39	.47			3.00	.45			3.52	.46			3.28	.61		
30-39	3.50	.35			3.53	.41			3.43	.56			3.33	.68		
40-49	3.70	.53	.894	.471	3.27	.53	1.148	.339	3.55	.39	.358	.838	3.46	.56	.477	.753
50-59	3.59	.47			3.44	.72			3.63	.56			3.44	.56		
60이상	3.54	.41			3.25	.63			3.60	.40			3.28	.54		

* P<.05

3. 학력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에서는 건강요인에서 대졸에서 3.3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3.35±.50, 초등졸 3.30±.69, 무학 3.20±.68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검증결과 통계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

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요인에서는 중졸 3.71±.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졸 3.61±.37, 고졸 3.53±.47, 대졸 3.50±.4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요인에서는 초등졸 3.6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3.63±.38, 대졸 3.62±.53, 무학 3.60±.22, 대학원졸 2.75±.32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요인에서도 무학 3.5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졸 3.51±.67, 대졸 3.44±.51, 고졸 3.36±.52, 줄졸 3.26±.49, 대학원졸 2.16±.98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요인과 성취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학력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학력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무학	3.60	.22	1.355	.248	3.20	.68	3.085	.013	3.33	.74	3.080	.013	3.53	.79	1.414	.226
초등졸	3.67	.50			3.30	.69			3.61	.37			3.51	.67		
중졸	3.39	.56			3.35	.50			3.71	.30			3.26	.49		
고졸	3.63	.38			3.22	.49			3.53	.47			3.36	.52		
대졸	3.62	.53			3.38	.64			3.50	.44			3.44	.51		
대학원졸	2.75	.32			2.75	.44			2.33	.29			2.16	.98		

* P<.05

4. 월수입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수입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에서는 정서요인에서 200만원이상 4.1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200만원미만은 3.72±.34, 100-150만원미만 3.66±.48, 100만원미만 3.50±.43으로 통계적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에서는 200만원이상 3.50±.7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0-150만원미만 3.45±.38, 100만원미만 3.31±.65, 150-200만원미만 3.05±.54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에서는 100만원미만 3.6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150만원미만 3.52±.35, 200만원이상, 3.47±.46, 150-200만원미만 3.46±.49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요인에서는 200만원이상 3.80±.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미만 3.38±.57, 150-200만원미만 3.29±.48, 100-150만원미만 3.27±.44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요인과 성취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월수입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단위 : 만원

월수입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100미만	3.50	.43	4.714	.004	3.31	.65	.984	.404	3.62	.49	.534	.660	3.38	.57	1.591	.197
100-150	3.66	.48			3.45	.38			3.52	.35			3.27	.44		
150-200	3.72	.34			3.05	.54			3.46	.49			3.29	.48		
200이상	4.14	.62			3.50	.70			3.47	.46			3.80	.73		

* P<.05

5.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에서는 정서요인에서 기형장애에서 4.37±.88로 가장 높은 만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수장애 3.77±.50, 소아마비 3.55±.20, 기타장애 3.55±.44, 뇌성마비 3.47±.48, 절단장애 3.45±.38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에서는 기형장애에서 4.00±.35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척수장애 3.50±.56, 절단장애 3.43±.54, 뇌성마비 3.36±.49, 소아마비 3.20±1.09, 기타장애 3.16±.61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에서는 기형장애 4.25±.11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척수장애 3.64±.38, 뇌성마비 3.60±.44, 소아마비 3.56±.88, 기타장애 3.53±.47, 절단장애 3.46±.37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취요인은 기형장애 4.33±.47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뇌성마비 3.43±.52, 척수장애 3.42±.53, 절단장애 3.36±.34, 소아마비 3.36±.53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장애 유형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뇌성마비	3.47	.48	2.340	.048	3.36	.49	1.570	.176	3.60	.44	1.113	.359	3.43	.52	1.281	.279
척수장애	3.77	.50			3.50	.56			3.64	.38			3.42	.53		
절단장애	3.45	.38			3.43	.54			3.46	.37			3.36	.34		
소아마비	3.55	.20			3.20	1.09			3.56	.88			3.36	.53		
기형	4.37	.88			4.00	.35			4.25	.11			4.33	.47		
기타장애	3.55	.44			3.16	.61			3.53	.47			3.32	.63		

* P<.05

C.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1.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은 건강요인에서 3개월이상-6개월미만 4.1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이상-1년미만 3.43±.56, 3개월미만 3.43±.62, 1년이상 3.24±.59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요인에서는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95±.31로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이상-1년미만 3.84±.39, 3개월미만 3.51±.28, 1년이상 3.52±.48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요인에서는 6개월이상-1년미만 3.77±.47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3개월미만 3.65±.56, 1년이상 3.56±.46, 3개월이상-6개월미만 3.37±.43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요인에서는 6개월이상-1년미만 3.63±.41, 3개월이상-6개월미만 3.62±.36, 3개월미만 3.39±.54, 1년이상 3.33±.59순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요인과 성취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단위 : 개월

참여 기간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3미만	3.65	.56	.976	.407	3.43	.62	3.131	.029	3.51	.28	2.891	.049	3.39	.54	1.215	.308
3-6	3.37	.43			4.12	.47			3.95	.31			3.62	.36		
6-12	3.77	.47			3.43	.56			3.84	.39			3.63	.41		
1년이상	3.56	.46			3.24	.59			3.52	.48			3.33	.59		

* P<.05

2.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에서는 건강요인에서 1회 3.79±.73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2회 3.55±.64, 3회 3.33±.52, 4회이상 3.17±.59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 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요인에서는 2회 3.7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3.70±.24, 4회이상 3.55±.55, 3회 3.54±.41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은 1회참여에서 3.7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 3.63±.48, 4회이상 3.55±.46, 2회 3.52±.37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요인에서는 2회참여 3.51±.46, 1회 3.44±.49, 3회 3.41±57, 4회이상 3.32±.60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요인과 성취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내지 않았다.

<표 13>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단위 : 회

참여 기간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1회	3.70	.24	.927	.431	3.79	.73	3.096	.031	3.72	.71	.409	.747	3.44	.49	.531	.662
2회	3.75	.34			3.55	.64			3.52	.37			3.51	.46		
3회	3.54	.41			3.33	.52			3.63	.48			3.41	.57		
4회이상	3.55	.55			3.17	.59			3.55	.46			3.32	.60		

* P<.05

3.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은 건강요인에서 2시간 참여자가 3.79±.58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4시간이상 3.47±.44, 1시간 3.47±.70, 3시간 3.35±.57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요인은 4시간이상 3.77±.80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3시간 3.70±.49, 1시간 3.59±.40, 2시간 3.54±.42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은 4시간이상 3.66±.35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3시간 3.65±.41, 1시간 3.64±.44, 2시간 3.52±.50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취요인은 4시간 3.60±.55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3시간 3.46±.80, 2시간 3.36±.55, 1시간 3.33±.49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단위 : 시간

참여 기간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1시간	3.59	.40	.860	.465	3.47	.70	2.614	.041	3.64	.44	.597	.619	3.33	.49	.616	.606
2시간	3.54	.42			3.79	.58			3.52	.50			3.36	.55		
3시간	3.70	.49			3.35	.57			3.65	.41			3.46	.80		
4이상	3.77	.80			3.47	.44			3.66	.35			3.60	.55		

* P<.05

4.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은 건강요인은 건강관리 3.84±.55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사교 3.57±.57, 신체를 위해 3.50±.77, 스트레스 3.35±.87, 여가선용 3.20±.80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요인 사교를 위해서 3.90±.73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스트레스해소 3.80±.32, 신체를 위하여 3.62±.37, 건강관리 3.55±.44, 여가선용 3.33±.14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요인은 사교를 위해 3.78±.39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엿으며, 여가선용 3.66±.45, 신체를 위해 3.61±.61, 건강관리 3.56±.44, 스트레스해소 3.40±.19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취요인은 사교 3.78±.49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건강관리 3.39±.56, 스트레스해소 3.20±.39, 신체를 위해 3.08±.60, 여가선용 3.05±.41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동기	정서요인				건강요인				사회요인				성취요인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bar{x}$	S	F	p
건강관리	3.55	.44			3.84	.55			3.56	.44			3.39	.56		
신체	3.62	.37			3.50	.77			3.61	.61			3.08	.60		
사교	3.90	.73	1.726	.151	3.57	.57	3.810	.027	3.78	.39	.711	.586	3.78	.49	2.149	.081
여가선용	3.33	.14			3.20	.80			3.66	.45			3.05	.41		
스트레스	3.80	.32			3.35	.87			3.40	.19			3.20	.39		

* P<.05

D.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상관관계분석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만족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참여형태의 요인인 참여정도는 참여정도와, 참여동기, 건강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동기는 참여기간과, 참여정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만족의 하위요인인 정서요인은 건강요인과, 성취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은 사회요인과 정서요인 그리고 참여정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시간요인은 생활체육참여형태와 참여만족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16>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상관관계분석

	참여기간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동기	정 서	건 강	사 회
참여정도	.340***						
참여시간	.071	.090					
참여동기	-.342***	-.270**	.070				
정 서	-.052	-.134	.113	.154			
건 강	-.188	-.297**	.009	.189	.373***		
사 회	-.088	-.051	.021	.027	.062	.298**	
성 취	-.088	-.115	.128	-.015	.544***	.430***	.191

E.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1.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에서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만족과 참여기간의 설명력은 전체의 64.8%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모델 검정비에 나타났듯이 참여만족의 하위요인인 정서, 건강, 사회, 성취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참여기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변 인	B	SEβ	Beta	T	Sig. T
(상수)	4.594	1.070		4.292	.000
정서	5.939E-02	.261	.028	.227	.821
건강	-.296	.193	-.181	-1.536	.128
사회	-6.818E-02	.228	-.032	-.298	.766
성취	-3.370E-02	.225	-.019	-.150	.881
R^2=.648 F=.907					

2. 참여정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참여정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에서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만족과 참여정도의 설명력은 전체의 68.2%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모델 검정비에 나타났듯이 통계적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β=.306)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사회, 성취만족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참여정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변 인	B	SEβ	Beta	T	Sig. T
(상수)	4.585	.968		4.738	.000
정서	-7.783E-02	.236	-.039	-.329	.743
건강	-.465	.174	.306	-2.667	.009
사회	7.253E-02	.207	.036	.351	.726
성취	5.091E-02	.203	.031	.250	.803
R^2=.682 F=2.341**					

* p<.05

3.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에서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만족과 참여시간의 설명력은 전체의 66.8%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모델 검정비에 나타났듯이 통계적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취(β=.315)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건강, 사회만족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참여시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변 인	B	SEβ	Beta	T	Sig. T
(상수)	1.163	.945		1.230	.222
정서	.143	.231	.077	.621	.536
건강	-.107	.170	-.075	-.627	.532
사회	3.036E-02	.202	.016	.150	.881
성취	.180	.199	.315	.904	.008
R^2=.668 F=2.941**					

* p<.05

4.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에서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만족과 참여동기의 설명력은 전체의 61.7%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모델 검정비에 나타났듯이 통계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β=.210.)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사회, 성취만족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변 인	B	SEβ	Beta	T	Sig. T
(상수)	.137	1.171		.117	.907
정서	.443	.286	.188	1.550	.125
건강	.382	.211	.210	2.211	.014
사회	-1.904E-02	.250	-.008	-.076	.939
성취	-.406	.246	-.205	-1.648	.103
R^2=.617 F=2.806*					

* p<.05

V. 논 의

우리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스포츠 활동도 이미 서울 장애자 올림픽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의미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가 솔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훈련 및 고용을 명시적인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직장을 구해 주고 이와 아울러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활동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실적이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인 체육은 서울 외 5개 지역에서 각 장애인 생활체육 동우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연중 실시되며 월 1,00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양궁, 탁구, 론볼링, 휠체어테니스, 보치아, 에어로빅체조 등이다.

또한 생활체육동우회를 중심으로 각종 대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회장배 론볼링대회, 전국 장애인 양궁초보자 강습회 및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전국휠체어테니스대회, 생활체육 좌식배구 등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체육행사이다. 그 외에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용평스키장에서 장애인 스키교실을 개최하고 있고,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단계별로 장애인체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습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체육은 체육활동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수단으로써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퇴화방지 또는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기영, 1997)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들도 생활체육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참여를 권장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을 수 있도

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영관(1993)은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체육 참여정도 등이 사회화 주체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문준혁(1998)은 지체부자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생활만족에서는 참여빈도와 기간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중 참여기간은 건강요인과 사회요인에서, 참여빈도는 건강요인에서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론을 얻었다. 또한 노형규(1998)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에서 참여빈도와 참가강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기간, 참가빈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생활체육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 인접지역에 설치하고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확충이 요구된다(송채훈, 1999).

이렇듯 장애인체육활동은 장애인의 장애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재활수단으로서 기능회복과 건강보호차원에서도 또는 신체기능 퇴화 방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엄정식, 2004)

Ⅵ.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참가 형태에 따른 생활만족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를 기르고 생활체육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대상은 2005년 현재 G광역시의 장애인으로써 생활체육시설(축구, 수영, 보치아, 휠체어농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등)을 이용하고 있는 만 20세~60세 이하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생활체육참여형태와 참여에 따른 만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생활체육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참여기간은 1년이상, 주당참여횟수는 4회이상, 1회참여시 소요시간은 2시간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는 건강관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종목은 수영종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요인별 생활체육 참여만족 중 성별은 성취요인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자들이 생활체육참여에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건강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고, 월수입은 정서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만족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유형은 정서요인은 기형장애에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 중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동기 모두에서 건강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건강요인과 사회요인에서는 3개월이상-6개월미만집단에서, 정서요인과 성취요인

은 6개월이상-1년이하집단에서 높은 만족을 보였고, 참여빈도는 건강요인에서 2시간 참여자, 정서, 사회, 성취요인은 4시간 참여하는 집단의 만족이 높았으며, 참여동기는 건강관리의 목적이 높은 만족을 보였다.

4.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만족의 상관관계분석은 참여정도는 참여동기, 건강요인에서, 참여동기는 참여기간과, 참여정도, 참여만족의 하위요인인 정서요인은 건강요인과, 성취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은 사회요인과 정서요인 그리고 참여정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참여정도와 참여동기에서는 건강요인이, 참여시간은 성취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참여기간에서는 정서, 건강, 사회, 성취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론을 종합하면 지체장애우의 생활체육참여 형태는 1년이상 건강을 목적으로 꾸준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에 따른 만족도 역시 건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과 성취요인이 만족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장애우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운동공간의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도와 전문화된 운동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김선중(1994). 지체장애인의 스포츠참가 경험과 스포츠태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의수(1995). 장애자체육, 서울 : 녹원출판사.

나운한, 남상만(1997). 장애인복지 개론. 홍익제.

노형규(1998).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준혁(1998). 지체부자유인의 생활체육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관(1992).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요인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적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 창간호.

송영욱(1993).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송채훈(1999). 지체장애인의 스포츠사회화 요인과 생활만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정식(2004). 장애인체육 발전의 정책적 프로그램 방안연구. 스포츠리서치지. 제15권5호. pp. 987-996.

오광진(2000). 통합체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장애아의 운동참가 및 유능감 지각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정석(2004).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제홍(1993). 스포츠 사회화 상황요인과 사회체육참여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창진(1997). 운동이 뇌성마비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흥구(1998). 생활체육참가와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지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임번장(1986). 사회육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장명재, 홍양자(1994).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권. 제1호.

최승권(1999). 21세기 장애인 스포츠 발전방안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3). 장애인생활체육시설 및 실시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 특수체육총론. 서울. 태근문화사.

홍양자(1996).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변천과정. 한국특수체육학회지. 4권 제1호.

홍양자(1996). 특수체육. 서울. 21세기교육사.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53, 87-97.

Heppe, G., & Ray, R. O. (1983). Recreational activity breath and intensity and the relationship to life happiness of older adul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Kansas City: MO.

Kelly, J. R. (1983). Leisure styles: A Hidden core. Leisure Sciences, 5, 321-327.

Lemon, B. W., Bengston, W. L.,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el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511-523.

Leonard. W. M(1988). A sociological persprctive of sport(3rd ed). MN: Charles C. Thomas publisher.

Mcphherson. B. D(1991). Sport partcipation across the life cycle: review of the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ociology of Sport Journal.

Medley. M. I(1980).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and Older. Journal of Germotology. Vol. 31. No 4. 448-455

Neugarten. B. L(1979).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de. C. CEDDER: Charles C. Thomas publisher.

Peppers, L. G. (1976). Patterns of leisure and adjustment to retirement. Gerontology, 16, 441-446.

Rapport, R., & Rapport, R. N. (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Riddick, C. C., & Daniel, S. N. (1984).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other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olde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2), 136-148.

부록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생활체육참여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이 지 명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4) 귀하의 장애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뇌성마비　② 척수장애　③ 절단장애　④ 소아마비　⑤ 기형　⑥ 기타장애

5)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미만　②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③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④ 200만원이상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개월미만 ② 3개월이상-6개월미만

③ 6개월이상-1년 미만 ④ 1년이상

2) 귀하의 생활체육을 1주일에 몇회정도 참여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이상

3) 귀하의 1회 생활체육 참여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이상

4) 귀하가 생활체육을 참여하기 시작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관리 ② 아름다운 신체를 위하여 ③ 사교 및 대인관계

④ 여가선용 ⑤ 스트레스해소

5) 귀하가 생활체육을 주로 참여하시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① 축구 ② 수영 ③ 보치아 ④ 휠체어농구

⑤ 탁구 ⑥ 배드민턴 ⑦ 볼링 ⑧ 기타( )

다음의 문항들은 생활체육 참여 후 자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난에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서적 안정을 얻을 때가 많다.					
2.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어 좋다.					
4. 성취감을 느낀다.					
5.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어 좋다.					
6.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없어 졌다.					
7.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					
8.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9.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0.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는다.					
11.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2. 다른 사람이 못마땅함을 자주 느낀다.					
13. 내 신체에 자신감을 가졌다.					
14.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한다.					
15.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16.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함을 자주 느낀다.					
17.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18. 삶에 보람을 느낀다.					
19. 가끔 요통을 느낀다.					
20. 일상생활이 즐겁다.					